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약속 위반 아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 참석...미-일 양자회담 전 기자 문답

아베 “유엔결의 위반” 입장차 트럼프 “한미훈련은 돈 낭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 회담에 참석 중인 두 정사는 이날 양자회담 직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약속 위반인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감정은 위협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두둔하

면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진화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두 정사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때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모양새를 연출한 바 있다. 모두 발언 때가 지만 해도 좋았다. 두 정사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대북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려는 의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기자들과 문답이 시작되고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상황이 돌변했다.

미 백악관이 배포한 문답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 많은 실험을 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아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난주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으며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

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전한 뒤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전한 돈 낭비’라고까지 표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게 맞다고 말하겠느냐”고 동조를 구했고, 볼턴 보좌관은 “그렇다. (한미연합훈련이) 아주 많이 수정됐다”고 호응했다.

이어 북한과 만남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만남을) 할 것이다. 그래, 아마”라며 “그러나 나는 단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거리의 신조의 것, 알다시피 그의 영토이기 때문이다(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이 아닌 일본 영토를 위협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는 공포로 오싹해 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 말을 이어받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 북한의 또다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본 총리가 어떻게 느끼지 이해할 수 있다”며 “내 말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다르다. 그러나 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한 기자가 아베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당시의 입장에 다가오길 희망하느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나는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한 항상 합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과 북한의 프로세스를 100%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더이상 논란의 확산은 피하려는 답변을 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95〉 소작

소작(蘇祿, 953-1009)은 요나라 경종의 부인으로 나어린 아들 성종을 대신해 섭정에 나서 국정을 개설했다. 1004년 북송과 ‘전연의 맹’을 맺어 경제적이익과 함께 장기간 화평을 누렸다.

어릴 때 이름은 연연(燕燕)으로 5대 황제 경종 아육현과 결혼해 소태후가 되었고 6대 황제 성종을 낳았다. 경종은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국정보다는 사냥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점차 조정의 중요 대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928년 경종이 35세로 죽고 12살 나어린 성종 아육용서가 제위에 오르자 부득이 섭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1009년 죽을때까지 사실상 요나라 국정을 책임졌다. 그녀는 소설에 묘사되는 바처럼 맹렬 여성이 아니라 현명하고 정치적 대의에 밝은 여성 지도자

제후들이 사적으로 모이거나 왕래하지 못하도록 해 왕권 찬탈의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 덕에 소작이 순조롭게 황후가 되었고 아육용서가 성종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사를 그와 상의했다. 그의 처와 자식을 죽였다. 사실상 소태후와 한덕양은 부부 같은 관계가 되었다. 일상 생활을 같이 했다. 성종은 자신의 계부격이 되었고 6대 황제 성종을 낳았다. 경종은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국정보다는 사냥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점차 조정의 중요 대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928년 경종이 35세로 죽고 12살 나어린 성종 아육용서가 제위에 오르자 부득이 섭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1009년 죽을때까지 사실상 요나라 국정을 책임졌다. 그녀는 소설에 묘사되는 바처럼 맹렬 여성이 아니라 현명하고 정치적 대의에 밝은 여성 지도자

거란족과 한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법치를 확고히 해 한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했다. 거란인이 한족을 죽여도 소나 말로 배상하면 그만일 정도로 한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했다. 남쪽 송나라로 도망간 한인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펴다수의 한인이 다시 요나라로 돌아오도록 유도했다. 농업과

요나라 전성시대 이끈 여걸

였다. 그녀가 당면한 정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제후와 중신들은 각기 군대를 거느리고 강력한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했다. 한인 사대부와 거란 일족간의 갈등도 상당했다. 그녀는 과감한 국가개혁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했다. 요 건국 이후 유지된 관리 세습제와 거란족 우대책을 과감히 타파했다. 거란족 출신의 아육사진, 아육휴가 등과 함께 한인 관리 한덕양 등을 발탁해 종족간 인사 균형책을 시행했다.

종친인 아육사진에게는 조카딸을 시집보내 충성을 확보했다. 아들 아육용서와 아육사진이 절친한 친구 관계를 맺도록 격려했다. 성종은 자신이 아끼는 말을 아육휴가에게 하사해 그의 충성을 유도했다. 한덕양은 한지고의 손자로 소태후가 가장 신임하는 신료였다. 한지고는 태조 아육아보기의 신임을 받아 요나라의 의례를 만들어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발해국 정벌에 큰 공을 세워 중서령으로 승진했고 좌평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한지고의 셋째 아들 한광사 역시 요나라의 관직에 올랐고 소씨 집안 여자와 결혼했다. 사실상 거란의 귀족이 된 셈이다. 한광사의 넷째 아들이 한덕양이다. 남원 추밀사로 있던 982년 9월 경종이 죽자 자신의 부하들을 소작의 궁궐로 보내 그녀를 보호했다. 또한

양잠을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다.

1004년 북송과 맺은 ‘전연의 맹약’은 최고의 업적이었다. 북송의 조광윤과 조광의는 요나라를 계속 정벌했다. 베이징 주변의 고랑하 싸움에서 요군은 북송군을 대파했다. 986년 조광의가 일으킨 싸움에서 북송의 명장 양업은 요나라의 계략에 말려 전사했다. 986-1003년 약 20년간 요나라는 거의 해마다 남쪽의 송나라를 정벌했다. 1004년 20만 군대를 이끌고 남하한 요나라는 현 하남성 북쪽에 해당하는 전연에서 송군과 대치했다. 재상 기준의 건의로 친정했지만 송의 진종은 요와 싸움보다는 화친을 희망했다. 결국 1004년 전연의 맹약이 맺어졌다. 매년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을 받는 협약으로 요나라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후 40년간 양국의 화평이 이어졌다.

그녀는 아들인 성종을 역사상 보기 드문 명군이 되도록 엄격히 교육시켰다. 하루는 성종이 사냥에 나갔다가 숲을 마시자 아들을 나무라면서 “천하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1009년 성종에게 대권을 넘기고 섭정에서 물러났다. 유주에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이동 중 병에 걸려 57세로 세상을 떠났다.

격화하는 홍콩 시위 ... 진압 수위 높이는 중국



홍콩 경찰이 25일 홍콩에서 벌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 “동란시 중앙이 관여” 덩샤오핑 어록 꺼내며 무력 개입 시사

홍콩 시위가 12주째 이어지며 격화한 가운데 중국이 홍콩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홍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화염병과 물대포로 극렬 대치한 지난 25일 밤 시평에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 “홍콩에서 동란이 일어나면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통신은 이는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주권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홍콩에 대한 개입은 중앙정부의 권력일 뿐만 아니라 책

임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덩샤오핑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라는 위대한 구상의 창립자로 이와 관련한 그의 발언은 비범한 통찰력이 있었으며 아직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의 폭력 시위 속에 덩샤오핑의 홍콩 문제에 대한 중요 발언을 되새겨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기초한 홍콩의 헌법 제도 질서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홍콩에서 최근 발생한 동란”으로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나 ‘홍콩 독립’ 같은 구호까지 나왔다면 이는 홍콩의 질서

를 무너뜨리는 ‘색깔혁명’이라고 규정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마리아 탐 전국인민대표회의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좌담회에서 필요하면 ‘일국양제’를 수호하기 위해 ‘당연히’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우시우카이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홍콩의 상황이 중국과 미국이 이끄는 국내외의 반정부 세력 간의 “최후 결전”으로 극단주의자들이 중앙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에도 큰 손실이지만 ‘한 국가 한 체제’가 되는 것은 홍콩에는 ‘감내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日 성노예 추모비 철거 1년만에 재등장

마닐라 배클라란 성당 설치

지난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일본군 성노예’ 추모비가 철거된 지 1년여만에 새로운 추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현지 여성단체인 ‘라일라 필리피나’와 ‘가브리엘라 여성당’, ‘진보를 위한 통합’ 등은 이날 마닐라의 배클라란 성당 구역에 설치된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성노예와 폭력 희생자’ 추모비를 공개했다.

가브리엘라 여성당 소속 알린 브로사스 의원은 이 추모비가 위안부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브로사스 의원은 이어 “우리 할머니들이 이 문제에 관해 입을 연 이후로 여태껏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필리핀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추모비 위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2m 높이의 일본군 성노예 추모 동상이 이날 제막식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당시 “다른 국가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며 추모상 철거를 두둔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일본군 점령기에 약 1천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